

광주발 K리그 돌풍 시작 됐다



광주 FC, 데뷔전서 대구 3대 2 꺾고 첫 승 '파란' 전남, 호남 더비서 전북에 1대 0 ...지동원 곧 복귀

광주발 축구 돌풍이 시작됐다. K리그 데뷔전에 나선 광주 FC가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개막전에서 3-2로 재역전극을 펼쳐며 역사적인 첫 승을 장식했다. 주장 박기동과 김동섭이 공격 듀오로 최전방에 섰고 미드필더 안성남이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공격 지원에 나서며 승리를 이끌었다. 3만6241명의 응원들 등에 업은 광주는 전반전부터 공세를 벌였지만 초반 득점에는 실패했다. 전반 44분 허재원이 골포스트 왼쪽

에서 날린 회심의 슈팅마저 골문을 벗어나면서 결국 광주는 0-0으로 전반을 마감했다. 후반 6분 마침내 광주의 득점포가 가동됐다. 박기동이 허재원이 올려준 크로스를 받아 헤딩슛으로 대구의 골문을 갈랐다. 광주의 창단 첫 골.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대구 황일수의 기습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경기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16분에는 조형익에게 헤딩골을 내주며 1-2로 전세가 뒤집혔다. 후반 19분 최만희 감독이 박희성 대신 윙백 주양과울로를 투입하며 승

부수를 던졌다. 대구도 후반 24분 황일수를 대신해 유경렬 카드를 내밀었지만 후반 31분 유경렬의 핸들링 반칙이 나오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페널티킥 찬스에서 키커로 나선 김동섭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2-2로 승부를 되돌렸다. 후반 38분 주장 박기동이 해결사로 나섰다. 문전으로 쇄도하던 박기동이 김동섭이 올려준 공을 오른발 슈트로 연결시키며 3-2 역전극을 연출했다. 수문장 박호진은 후반 45분 결정적인 선방으로 팀의 승리를 지켜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막내팀 광주는 첫 경기 만에 감격적인 승리를 신고하며 돌풍을 예고했고, 대구는 K리그 개막전 무승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최만희 감독은 "경기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펠레 스코어로 3만여 시민들 앞에서 첫 승을 거둬 기분이 좋다"며 "더 발전해가는 모습으로 광주의 지력을 보여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른 전남 드래곤즈는 프로 2년차 공영선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한편 무릎 타박상으로 재활중인 전남의 스트라이커 지동원은 20일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 때 그라운드에 복귀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기동의 헤딩슛
광주 FC의 박기동(왼쪽)이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대구 FC와의 개막전에서 헤딩슛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기동 조광래호, 김동섭 홍명보호 티켓 '찜'

광주 FC의 '태극 듀오' 박기동과 김동섭이 K리그 새로운 공격라인으로 떠올랐다. 광주 FC가 5일 대구 FC를 상대로 한 K리그 신고식에서 3골을 몰아넣으며 화끈한 화력을 과시했다. 박기동은 데뷔 무대에서 두 골을 성공시키며 상부의 베테랑 김정우와 득점 공동 1위에 올라섰다. 근육 경련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그라운드를 지키며 주장의 든직한 모습도 보여줬다. 김동섭(22)은 핸들링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기록한 뒤 후반 38분에는 환상적인 패스로 박기동과 역전골을 합작했다. 박기동과 김동섭은 최만희 감독이 우선 지명으로 영입한 광주FC의 핵심 병기. 두 선수 모두 아마 무대에서 블루칩으로 평가받으며 기대를 모았던 공격수다.



승실대 재학 중이던 2009년 유니버시아드 대표로 태극마크를 달았던 박기동은 지난해 일본 FC 기후에서 뛰었다. 부상으로 이렇다할 활약을 선보이지는 못했지만 타고난 공격본능과 191cm라는 장신에 유연함까지 갖춘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가대표팀 서정원·박태화 코치가 이미 박기동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광주 캠프를 찾았고, 개막전에는 조광래 감독이 직접 자리를 했다. 후반 거침없는 공격력을 과시한 박기동은 조 감독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대표팀 발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또 다른 승리의 주역 김동섭은 홍명보호 재승선을 노리고 있다. 장훈고 에이스로 맹활약했던 김동섭도 시미즈에스펄스를 거친 J리그 출신. 일본 진출은 아쉬움에 그쳤지만 홍명보호 감독의 부름을 받아 올림피아대표팀에서 뛰었던 차세대 공격수다. 이날도 빠른 스피드를 앞세운 공간 침투 능력과 뛰어난 패스를 선보이며 경기장을 찾은 김태영, 박건하 올림피아대표팀 코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기동은 "후반전 몸이 풀리면서 자신감도 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득점왕 신인왕도 좋지만 팀이 우선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섭은 "페널티킥을 준비할 때 관중들이 '골'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긴장되기 보다는 흥분되고 짜릿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광주 첫 승' 축하

○...광주 출신의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셀틱 FC)이 트위터를 통해 신생팀 광주 FC의 승리를 축하했다. 기성용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K리그 개막전 신생팀 광주의 첫 승~ 축하!'라는 멘션을 남기며 K리그와 고향팀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나지완 행운의 마스크? ○...2009 한국시리즈 끝내기의 주인공 KIA 타이거즈의 나지완이 광주 FC의 행운의 마스크(?)로 떠올랐다. 나지완은 이날 치과 진료를 위해 경기장 인근을 찾았다가 축구장 나들이에 나섰다. 나지완이 관망석에 자리를 잡은 순간 박기동의 첫 골이 나온 뒤 한국시리즈때와 같이 극적인 역전극까지 연출하면서 나지완은 광주 FC의 특별한 축하객이 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FC 개막전 관전평



광주 FC 개막전 관전평
박흥우

3만 6241명의 열광 ... 3대 2 펠레 스코어로 화답

선언과 동시에 일제히 중앙으로 밀고 올라오며 빠른 기습을 펼쳤다. 미처 수비 진용을 갖추지 못한 광주는 대구 황일수에게 허무하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상승세를 탄 대구는 후반 16분 이자남의 도움을 받은 조형익이 역전골을 터트리며 승부를 뒤집었다. 광주도 가만있지 않았다. 최만희 감독은 후반 20분께 박희성을 빼고 주양과울로를 투입한 데 이어 체력소모가 많은 안성남이 나온 자리에 김수범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전술적 변화는 곧 결실을 맺었다. 후반 38분 대구 유경렬의 핸들링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 찬스를 김동섭이 놓치지 않고 동점골로 만들어 냈다. 후반 들어 양 팀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잦아졌다. 바퀴

말하면 광주와 대구 모두 수비라인이 탄탄하지 못했다. 광주는 포지션별 간격이 벌어지면서 공간을 노출해 몇 차례 실점위기를 맞았다. 대구의 경우, 수비라인을 이끌어갈 리더가 없어 광주의 공격을 견어내기에 급급했다. 광주의 다음 상대는 K리그의 최강자 중 하나인 수원이다. 이에 따른 팀 전략과 전술 변화가 필수적이다. 무리수를 지양하고 발 빠른 주양과울로, 파워와 헤딩력을 갖춘 박기동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 키커인 허재원의 기술력을 보강하고, 미드필더와 최중수비라인에 노련한 선수를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면 한다. (국내 1호 월드컵 심판·호남대 축구학과 교수)

3년만의 3월 19일까지

대세일 30%

1.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2. 160만원 상당 이태리 친환경 라텍스 무상증정 (300만원 이상 침대에 한함 180×200×25cm 대형사이즈)

화정동 아울렛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앤틱 식탁·좌탁 침대

ITALY

카우치 & 소파

ITALY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홍스페이스 아울렛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 (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PACE
홍스페이스
SINCE 1990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주)홍스페이스는 100% 이태리 친환경 앤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 ⇨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062-226-7567